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 산부인과학 임상실습을 중심으로 -

제상모 · 박은경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 2학년¹⁾

I. 서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회 기구인 의학교육연구소는 2000년 10월 30일에 의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 과목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문과(설문 참여 157명) 인터뷰를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세의대 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정리하였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또 다른 원인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의학교육연구소의 보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구체적인 임상 실습 교육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2000년도 연세의대 의학과 3학년의 산부인과 임상실습 과정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연구소의 임상과목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2000년도 연세의대 의학과 3학년 산부인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위해 산부인과 임상실습 지침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III. 결과

1) 설문조사결과 분석

다음은 의학교육연구소가 2000년 의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설문 참여 157명) 조사한 연세대학교 의학교육의 임상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3학년, 4학년들이 참여하는 전체 임상실습을 포괄하는 설문이었다.

(1) 임상실습의 교육목표에 대한 질문

〈표 1〉 임상실습교육목표에 대한 질문

	임상실습 교육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연세의대의 임상실습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1차진료 능력배양	89%	7%
② 전문의 능력 배양	3%	23%
③ 의학자 양성	5%	10%
④ 뚜렷한 목표가 없다	1%	59%

89%의 응답자가 임상실습의 목표는 1차진료 능력배양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병원에서 임상실습의 목표가 1차진료능력배양이라고 답한 사람은 7%였다.

임상 실습의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59%였는데, 여기서의 불분명성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이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 속에서 행해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 의대는 의학자와 1차 임상 의사, 전문의를 모두 교육시키고 있지만, 교육목표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교육 전반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의 수련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의과대학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수는 전문 지식을 과도하게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교육목표가 불분명한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난 의학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체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는 일단 지식을 다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강의시간이 많아지고 통합과정이 안 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생겨난다.

(2) 교육자에 대한 설문

〈표 2〉 실습담당자에 대한 질문

	현재 실습 지도가 주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① 담당교수	3%
② 담당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	1%
③ 전공의	88%
④ 교수, 전공의 없이 자율적이다.	7%

임상실습을 누가 이끌어주는지 물어보았다. 현재, 임상실습의 교육과정은 주로 병원 견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진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전공의이기 때문에, 실습중인 학생의 일정도 전공의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응답자의 88%가 전공의라고 대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표 3〉 실습지도자에 따른 도움 정도

	교수 지도	전공의 지도
① 많은 도움이 된다.	17%	43%
② 너무 전문적인 것을 강의 하는 경우가 많다.	33%	7%
③ 준비가 부실하여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12%	41%
④ 형식적이고 그나마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39%	10%

이 질문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생 지도와 전공의-학생 지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교수의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7%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중에서는 형식적이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9%), 너무 전문적인 것을 강의한다는 응답(33%)이 많았다.

전공의의 지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은 43%이었다. 전공의의 지도가 취소되거나(10%), 전문적인 내용이었다(7%)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고, 준비가 부실하였다(41%)는 응답이 많았다.

〈표 4〉 실습학생의 위치에 대한 질문

	병원내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의 위치는 어떠한가?
①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의 활동이 보장되면서 수기를 배운다	3%
②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16%
③ 계획없이 방치되어 있다	62%
④ 교수, 전공의의 아랫사람으로 여겨진다	12%
⑤ 진료에 방해가 되는 존재이다	7%

임상실습 기간 동안 실습중인 의대생의 위상을 물어보았다. 계획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대우받았다는 응답은 ①항과 ②항을 합하여 19%였다. 교수-전공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응답(12%)도 있었고, 진료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응답(7%)도 있었다.

(3) 결과 요약

현재 임상실습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뚜렷한 교육목표가 없기(59%)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1차진료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의과대학이 뚜렷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둘째, 교육자의 문제이다. 교수로부터의 교육이 적고 그 자리를 전공의가 메우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응답자의 45%는 교수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별도로 주관식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는, 비능률적인 실습운영, 환류 통로가 막혀있는 구조 등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실습계획은 진료계획에 맞추어 짜여있기 때문에 종종 축소되거나 취소된다. 교수와 전공의들은 진료와 연구에 바빠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고, 진료 도중에 틈을 내어야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세번째, 환자와의 관계형성 기술, 기본적인 술기교육,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등 기본 검사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깨너머로 습득하며 충분히 익히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본적인 임상 토대를 이루는 항목들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소홀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의 위치가 상실되고 소외된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2) 산부인과학 임상실습 교육과정

(1) 산부인과학 교실의 실습 지침

산부인과학교실의 2000년도 실습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1. 실습목적 :

3학년 산부인과학 강의를 통해 얻어진 산부인과 영역의 제반 지식을 토대로 임상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산모 및 산부인과의 중요한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원칙, 기본적인 수기를 습득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의사의 태도를 확립시킴으로써 일차 진료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2. 총론 :

- 실습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기간 중 외래(1주), 분만실(1주), 수술실 및 병실(1주), 영동세브란스 산부인과(1주)를 rotation한다.
- 임상실습 첫 시간에는 주임교수로부터 임상실습 전반에 대한 orientation을 듣는다.
-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교실 교수 지도하에 증례 발표 및 토의, 교과서 Topic review를 각각 1회 이상 발표한다.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배정된 실습 부서별로 실습에 참여한다.
- 교실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집담회에 반드시 참여한다.
-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2명씩 당직을 하며 주로 분만실과 응급실을 실습한다.
- 실습 2주말과 4주말 토요일에는 필기시험, 4주말에는 교실 강사에 의한 구술시험을 통해 객관적 실습평가를 받는다.

3. 교육자 :

산부인과학 교실은 두명의 학생교육담당 전공의를 지정하고 있으며, 증례토론을 지도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부서별 전공의는 학생들의 출석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사인지에 적힌 술기를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산부인과 임상실습의 교육목표는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일차 진료의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실제 교육 과정에서 학생은 산부인과 외래에 참가해 외래 환자를 대면해야 하며, 응급실과 분만실의 당직을 서 산부인과 응급질환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14번의 증례토의 및 text review 시간을 두어 중요한 질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임상 과목에 비하여 실습을 통해 중요한 임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2)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① 임상 실습 장소가 3차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임상실습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의사가 되어 수행할 임무의 내용과 같거나 또는 비슷할수록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목표와 가르칠 내용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때문에 실습 장소를 3차병원으로 한정짓지 말고,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이나 동창이 운영하는 병원에 실습을 보내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② 산부인과학의 교육과정은 강의와 실습이 분리되어있다. 3학년 1학기에 84시간의 강의를 진행되며, 3학년 2학기에 4주간의 임상실습이 진행된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강의가 실습 이전

에 집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임상 실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이 부족해지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의실에서의 교육내용과 병원외래, 입원실 등 모든 실습장에서의 교육 내용은 교육목표와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알맞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리이다. 현재의 분리되어 있는 강의와 실습 내용을 일치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실습기간 동안 교수-학생 교육으로 배정된 시간이 총 14시간이었지만, 약 절반에서 교수가 불참하였다. 실습기간 동안 회진, 외래, 수술방 등에서 교수-학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은 진료 계획에 따라 가감되고 있고, 교수들이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조사하고 성취한 지식을 교수로부터 지도받고, 임상증례에 대하여 토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의 일방적인 지식주입의 시간보다, 실습기간 동안의 교수-학생 교육을 더 원하고 있다. 때문에 임상 강의기간보다 실습기간 동안의 교수-학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전공의는 임상 실습 중인 학생의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전공의-학생 교육은 매일매일 실습 중에 이루어지며, 전공의는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로서 학생과 임상증례에 대해 토의하고 지도한다. 하지만 전공의-학생 교육은 대부분

그날그날의 일정과 자신의 일과에 대한 내용일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공의-학생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목표 하에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해져야 한다.

⑤ 산부인과학의 임상실습은 부서별 실습(분만실, 초음파실, 불임클리닉, 수술실 및 병실, 외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임상 과목의 경우 임상실습 학생에게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능으로 볼 때 아쉬운 점들이다. 그러나 산부인과학 교실의 경우, 모든 곳이 개방되어 있어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습 학생이 진료 현장에 참관하는 것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진료에 연관되기 쉽고, 주체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보다는 관찰자로서 방관하는 입장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개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기간 중 증례토론이나 개괄적인 토론을 늘리는 방법과 과제물로 포트폴리오, 집단 프로젝트를 제작하게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야겠다.

⑥ 산부인과학의 임상실습은 필기시험, 구술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교육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성과만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한 선생 자신의 평가, 교육과정 그 자체의 평가 그리고 학습환경평가도 함께 포함된 개념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다 나은 교육 성과와 발전을 위하여 행해지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교육 평가는 평가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 속에 편성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하는 대로 교육이 잘 수행될 때 비로소 평가가 의

미있는 것이다.

산부인과학 교실에서는 임상 강의와 실습 목표를 학생이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필기시험, 구술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성적을 산출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다 나은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도와 학습여건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고, 다시 교육계획을 조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나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동시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학습방향을 지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튜터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방적으로 시험을 보아 교육 결과의 환류를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기지 않는 변화가 필요하다. 평가는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더 나은 교육성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IV. 고찰

그 동안 의대생들이 가진 실습에 대한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실습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해오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교실에서 제시하는 임상교육지침이나 교육목표 역시 개선없이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교육과정을 경험한 피교육자로부터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하였다.

연구대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학 2000년도 임상실습이었다. 산부인과학 임상실습의 경우 모든 부서가 의대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타과목 실습에서 없는 긍정적인 교육과정이 있었다.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임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상황들도 있었다. 실습 장소가 3차병원으로 한정되어 일차 진료의사로서의 임상 교육이 어려웠고, 산부인과 환자의 특성과 흔한 질환군에 대한 기본적인 임상수기와 환자관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고, 교육방법이 강의와 진료 참관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1차진료 의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었다.

또한 진료 중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전공의가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오직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기준으로 실습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성과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 (1) 임상실습 교육 장소의 다변화
- (2) 흔한 산부인과 환자군에 대한 기본적인 임상수기와 환자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3) 실습 매뉴얼 제작
- (4) 교실 강의를 줄이고 실습 기간에 교수님과 접촉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
- (5) 전공의-학생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를 따로 두어 임상 교육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전공의-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 (6) 강의와 견학 위주의 교육이 의대생의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촉진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증례토론이나 개괄적인 토론, 세미나를 늘리는 방

법과 과제물로 포트폴리오, 집단 프로젝트를 제작하게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7) 학생의 학습성과만이 아니라 교육자의 평가, 교육과정 그 자체의 평가 그리고 학습환경평가도 함께 포함된 개념으로서 평가도구 개발

IV. 참고문헌

1. 김정화·이경원(2000). 우리의 의학교육은 왜 변화하지 않는가?. 한국사회학, 34(1), 109-134.
2. 최영길(1989). 임상실습 교육과 대학병원의 기능. 한국의학교육, 1(2). 7-9.